

# “말뿐인 소상공인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개선 목소리

### 상생협약 업종 10개 '실효성 의문' 현대차 중고차판매업 진출 이슈 신청단체, 사적비즈니스 전략 혹평

5년간 울타리를 쳐 소상공인을 보호 하자는 취지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등의 부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해 소상공인을 지켜줘야 할 생계형 적합업종이 실제 지정된 것보다 이해 당사자간 맺은 상생협약 업종이 더 많은 터여서 이를 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 제도를 놓고 곳곳에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문제로 자칫해·중소기업간 '상생협약'으로 흘러갈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이 오히려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정부 대전청사에서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을 막아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13일 시행에 들어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8개 업종이 '생계형'으로 지정됐다. 이듬해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도 매업이 '1호'로 지정된 이후 자동차판매업, LPG연료 소매업, 간장제조업, 고추장제조업, 된장제조업, 청국장제조업, 두부제조업이 잇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명단에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상생협약을 맺은

업종은 10개로 오히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보다 많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적합업종 지정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 국수제조업, 자동차전문수리업, 냉면제조업, 당면제조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 또 폐목재재활용업,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보행대차서비스업은 관련 단체들이 신청해 실태조사 단계에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지난 20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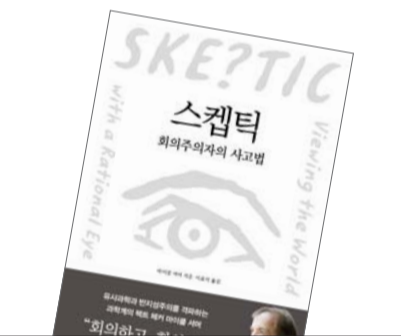
최한 '2020 추계학술대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은 누가 해도 된다는 가정에 따라 당초부터 신청요건을 낮췄는데, 신청단체가 업종을 대표해서 상생협약을 맺고 (그협약의 대가로) 수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상생협약이 대기업과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양자가 맺는 사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상생협약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협약 당사자간 자율에 맡겨놓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중 부회장은 "상생협약은 신청단체의 '사적 비즈니스'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던 생계형 적합업종을 상생협약이란 이유로 신청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 등과 타협하면서 그 대가로 반

대급부를 받는 것이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액보다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대기업의 협상 파트너로 나서는 단체의 대표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은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조합과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30% 이상 충족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어서 과도하게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고차판매업의 경우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2개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상태. 이들은 과거 한개 단체였지만 내분 때문에 갈라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새로 나온 책

### 지금 필요한 건 과학에 근거한 팩트

미국인의 20%는 여전히 달 착륙을 의심하고, 60%는 초능력이 존재한다 생각하며, 45%는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는다. TV쇼에는 외계인에 납치 당했다는 사람이 매년 등장한다. AI가 실생활에 응용되고, 블랙홀의 비밀이 밝혀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베스트셀러 사기꾼, 초자연 현상, 민간의학 등 세상은 허무맹랑한 헛소리와 믿을 수 없는 정보로 넘쳐난다. 2000년 4월 열 살의 소녀 캔디스 뉴메이커가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저산소증에 의한 허혈성 뇌증이 유발한 뇌수종과 부종, 질식이다. 여러 명의 성인이 캔디스를 담요로 감싸고 쿠션으로 막은 다음 위에 올라가 수시간 동안 눌렀다. 캔디스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애착치료 중이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애착치료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유사과학이고 비윤리적 행위다. 372쪽. 1만7800원. /김현정 기자 hjk1@



스keptik 마이클 셔머 지음/이효성 옮김/바다출판사

아무런 효능도 없는 신비의 자석, 병을 치료한다는 마법의 물, 귀를 청소해 마음을 정화한다는 이어코닝부터 죽은 자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영매, 위독한 병을 더 위독하게 만드는 대체의학, 불로장생으로 유혹하는 냉동 보존술까지, 돈벌이에 눈먼 사기꾼들은 유사과학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 간다. 372쪽. 1만78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백인의 취약성



미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이념에 기초해 건국됐지만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줄곧 눈에 띄게 비슷했다. 그들은 백인, 남성, 중간계급 혹은 상층계급, 비장애인이었다. 백인은 인종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 차별적 구조 안에서는 평범하고 선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288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 조금 다름이 주는 내 인생의 답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끊기고 단절된 언택트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창의성'이다.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로 사람을 대신할 인공지능(AI)은 날마다 진화하고 있다. 창의적이지 않은 인간은 금세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년 동안 '창의력'이 자꾸만 제자리걸음을 하며 소환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을 이론으로만 배웠기 때문이다. 저자는 "창의력만 장착한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창의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232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 귀뚜라미, 품질경쟁력우수기업

### 귀뚜라미범양냉방, 13년 연속 선정 친환경 보일러 개발·보급 앞장

귀뚜라미와 계열사인 귀뚜라미범양냉방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뽑히면서 품질에 대해 다시한번 인정받았다. 귀뚜라미는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냉·난방 사업부문 주력계열사인 귀뚜라미와 귀뚜라미범양냉방이 각각 5년 연속, 13년 연속으로 '2020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해 한 해 동안 품질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김승호 기자

1994년 '품질경영 100선'을 모태로 시작해 올해로 27회째를 맞았다. 귀뚜라미는 50년 역사의 보일러 전문기업으로, 보일러의 국산화와 친환경보일러 개발과 보급 확대에 앞장서며 우리나라 보일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귀뚜라미는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4월보다 앞선 2015년부터 환경부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콘텐싱보일러와 일반보일러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보일러 시대로의 전환을 주도했다. 최근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온수 증대기술을 모두 적용한 '거꾸로 NEW 콘텐싱프리미엄 가스보일러'를 출시하며 '스마트 친환경보일러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중소벤처 'K-닥터'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예방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 방식을 활용한 기업진단을 통해 360만 중소벤처기업의 주치의를 자처하고 나섰다. 중진공은 그동안 축적해온 진단방법론과 노하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경영위기 예방과 맞춤형 해결까지 지원하는 기업진단 시스템 'K-닥터(K-doctor)'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K-doctor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기능, 방식을 구분해 ▲비대면진단 ▲표준진단 ▲종합진단 ▲긴급진단 ▲챗봇진단의 5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비대면진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원격 방식으로 기업이 온라인에서 상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 표준진단은 정책자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진단과 자금평가 모형을 통합해 관련 지원과 맞춤형 정책사업을 추천한다. 종합진단은 기업분석모형 및 심층모형을 활용해 기업경쟁력 및 성장로드맵을 제시하고, 긴급진단은 재해 피해 등 경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컨설팅 사업을 적시에 연계지원한다. 챗봇진단은 성과관리를 통해 경영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비대면진단은 고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경영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역량을 분석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진공은 올해 개발을 끝내고 연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장소, 시간,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기자

## LG하우시스 0.5mm 수퍼라이트 삼복층유리

### 에너지 절감·결로 감소 효과

LG하우시스는 삼복층유리 제품의 중간유리에 기존보다 얇고 가벼운 유리를 적용해 무게를 대폭 줄인 'LG Z:IN 유리수퍼라이트 삼복층유리'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삼복층유리'란 세 장의 유리를 붙이고 유리의 사이사이 빈 공간에 아르곤(Ar) 가스를 주입한 제품이다. 두 장의 유리를 붙인 복층유리 대비 에너지 절감 및 결로 감소 효과가 뛰어나 주상복합, 고급빌라 건물에 적용되는 시스템 창에 주로 사용된다. 그동안 국내 유리업계에선 삼복층유

리의 중간유리로 5mm 정도 두께의 건축용 유리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LG하우시스는 이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얇은 0.5mm 두께의 미국 코닝사가 개발한 건축용 유리를 업계 최초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수퍼라이트 삼복층유리'는 기존 LG하우시스의 삼복층유리 제품 대비 무게를 30% 줄여 보다 적은 힘으로 창 개폐가 가능토록 했으며, 무거운 무게로 불편함을 겪던 건설현장에서의 시공 편의성도 높게 됐다. 또한, 가운데 적용된 유리는 육안상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얇은 두께여서 기존 제품 보다 더욱 선명하고 맑은 시야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